

정시 모집 시간대별 경쟁률

정시 모집에서 대학은 지원서 접수 기간 동안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3~6차례 중간 경쟁률을 발표하는데 이를 시간대별 경쟁률이라고 함. 정시 모집에서 경쟁률은 합격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따라서 수험생들은 전년도 경쟁률과 시간대별 경쟁률 등을 비교·분석하며 신중하게 지원하고 있음.

- ✚ 2020학년 정시 모집에서 서울대는 5차례 중간 지원서 접수 현황을 발표하고, 지원서 마감 날인 12월 28일 18시 이후에 최종 경쟁률을 발표합니다. 2019학년도에 같은 시간대에 접수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대와 같은 최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수험생도 경쟁률을 보면서 눈치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98명을 모집하는 인문계의 경우 지원서 접수 마감 날 오전 10시 평균 경쟁률은 1.0:1.0이었습니다. 15시 경쟁률도 1.6:1로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8시 마감 경쟁률은 3.7:1을 기록하여 전체 지원자의 56.9%가 마감 직전에 지원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원서 접수 현황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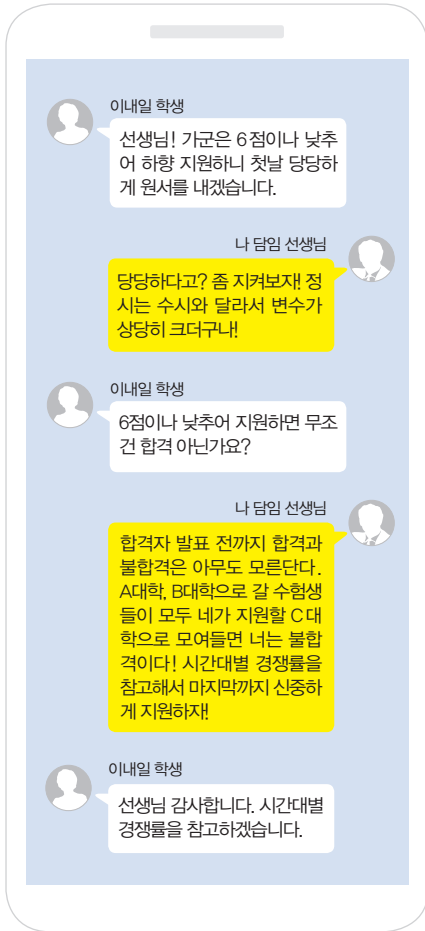
전형명	지원서 접수 기간	접수 현황 발표 일시	
		날짜	시간
일반 전형 기회 균형 선발 특별 전형	2019. 12. 26(목) 10:00~12. 28(토) 18:00(총 3일)	1일 차: 12. 26(목)	15시
		2일 차: 12. 27(금)	10시, 15시
		마지막 날: 12. 28(토)	10시, 15시, 최종 18시 이후

- ✚ 2019 서울대 정시 모집에서 경쟁률 변동이 가장 컸던 모집 단위는 산림과학부였습니다. 원서 접수 첫날은 지원자가 없었고 마감 날 오전 10시 발표 때 4명, 오후 3시 최종 발표에서 7명 지원으로 경쟁률이 0.4:1밖에 되지 않아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이례적인 상황은 없었으므로 미달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109명이 무더기로 지원, 결국 최종 경쟁률은 6.8:1로 치솟았습니다. 막판에 무더기로 지원하는 수험생들 중에는 점수가 높은 수험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경쟁률이 높아진다고 합격점까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글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신동원 이사

교단에 선 37년 동안 학부모들의 의견을 일일이 듣고 소통하려 노력했다. 서울 휘문고 진학교감,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 회장을 거쳐 휘문고 교장을 역임했다. 현재 (사)한국진로진학정보원 이사로, 진학 지도 현장에서 얻은 노하우를 전국 진학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글도 쓰고 강연도 한다.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합격선이 낮아지고,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합격선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년과 다른 현상이 나타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해보고 지원해야 합니다.

정시 모집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수시 모집 때 불합격한 경험에 있습니다. 이 들 중에는 하향 지원하여 무조건 합격하겠다는 수험생부터, 3회의 지원 기회를 모두 소진 지원하고 떨어지면 재수하겠다는 수험생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한 대학, 특정한 모집 단위에 수험생이 몰려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어떤 모집 단위는 지원자가 너무 적어 합격선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고자 중간 경쟁률을 발표합니다. 올해 입시의 가장 큰 변수는 수험생 감소와 교육과정의 변화입니다. 수능 응시자 수가 4만5천483명이나 줄었습니다. 최상위권은 큰 변수가 되지 못하지만, 중위권이나 중하위권으로 내려오면서 수험생 감소가 누적되므로 지원 양상이 전년도와는 크게 차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험생이 재수를 할 경우 기존과 다른 교육과정의 수능을 치러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반영이 되어 예년과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시간대별 경쟁률의 변화에서 어느 정도 감지될 것입니다.

어느 시간대에 지원한 수험생들의 합격률이 높을까요?

눈치 보지 않고 첫날 당당하게 지원한 수험생이 합격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날 마지막 지원 상황까지 점검한 후 신중하게 지원한 수험생의 합격률이 높을까요? 경희대가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경희대 입학처 입학전형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대입 원서 접수 시간대별 합격률·등록률 차이 분석(임진택)'을 보면 표와 같이 접수 시간 구간과 지원자 수 대비 합격률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습니다. 첫날에 지원한 수험생의 합격률은 18.8%였고, 마감 직전에 지원한 수험생의 합격률도 18.9%입니다. 즉, 마감 날 오후에 무더기로 지원하는 수험생들도 배치 참고점을 고려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합격률이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8 경희대 정시〉 접수 시간에 따른 합격률과 등록률(%)					
접수시간 구간	지원율	합격률	등록률	지원자 수 대비 합격률	합격자 수 대비 등록률
정시 1일	5.3	5.0	4.9	18.8	19.7
정시 2일	8.5	8.5	8.6	20.0	20.2
정시 3일	22.3	24.0	23.7	21.5	19.8
마감날 오전	20.8	21.8	22.5	20.9	20.6
마감날 오후	43.1	40.7	40.2	18.9	19.7